

08-17-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창세기 15:1-21

말씀제목: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람이 주를 믿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시려고 칼데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그가 “주 하나님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땅을 아브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확고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창 15:9)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양쪽 편에 놓았습니다. 해가 저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등으로 임하셔서 고기들 사이로 아브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브람에게 주실 땅에 대한 언약을 맹세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어느 한 편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양보하게 된다면 하나님 자신도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엄청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람이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지나간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켈인들과 크니스인들과 캣몬인들과 헛인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보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창 15:18-21)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그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장차 그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그 땅에 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지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의 지경까지, 즉 하맛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쿠스의 경계 하살에난과 하맛 지경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는 것이요, 단의 뿔이라. 단의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뿔이요, 아셀의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탈리의 뿔이요, 납탈리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의뿔이요, 에프라임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뿔이요, 르우벤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뿔이요, 유다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드릴 예물이 되리니 너비가 이만 오천 리드요, 길이는 다른 쪽인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으며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남은 지파에 대하여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뿔이요, 베냐민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시므온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잇사갈의 몫이요,잇사갈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접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접경 옆으로 남향한 암편은 그 접경이 카말에서부터 카데스에 있는 분쟁의 물에 이르고 대해에 이르는 강까지라.”(겔 48:1-8,23-29)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 북쪽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스리던 땅이며 앞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이 세워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을 연합하는 유엔으로 하여금 이 땅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옮기신 후에 자신의 땅을 나누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사밧 골짜기인 아마겟돈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과 스카랴는 이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흠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을 3:1-3)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스 14:1,3)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인해서 70 년부터 온 세상에 흩어져 유랑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1948 년 5 월 14 일에 그들을 회복하여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으며 어떤 다른 민족도 그 땅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그 땅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엔이 도모하려는 two state solution 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